

더워지는 날씨,

식중독에 유의하세요!



식중독이란?

1

식품을 통해 섭취한

2

유해 미생물·유독 물질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3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



식중독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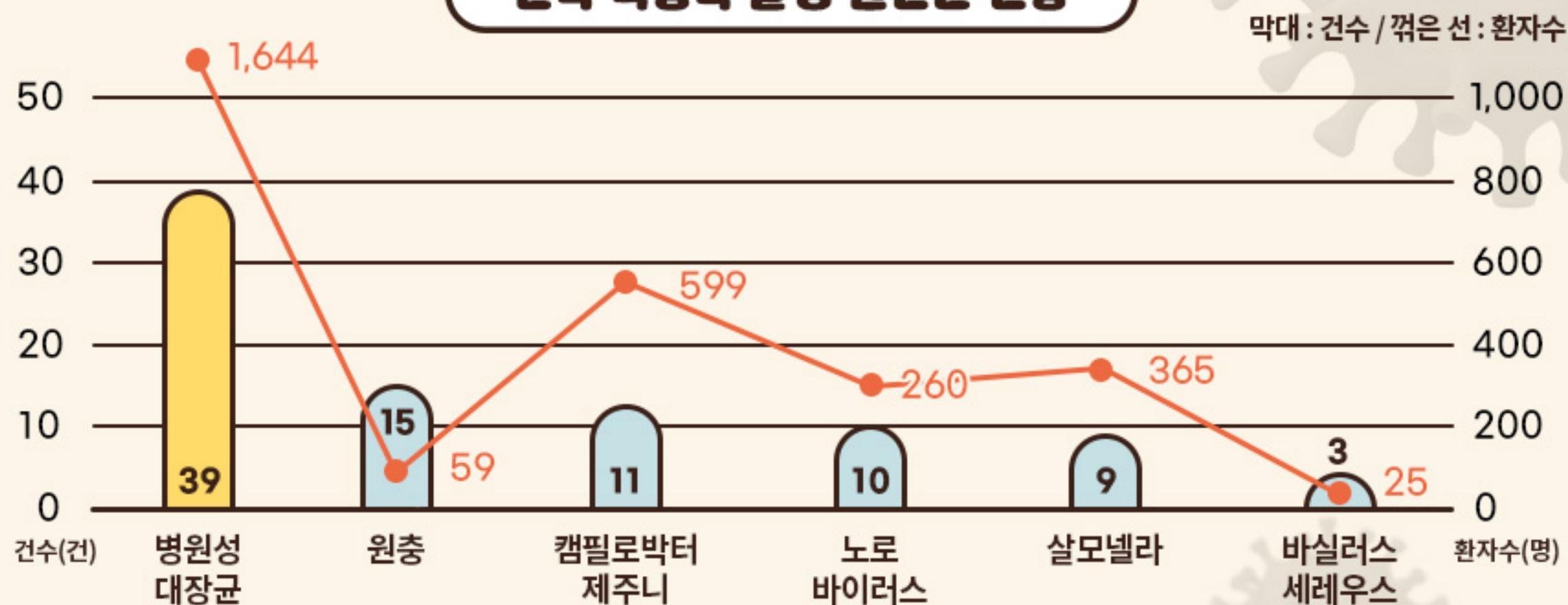
※ 최근 5년간(2016~2020년(잠정)) 6월에 발생한 식중독 현황 분석

서울시 식중독 발생 현황

환자수 **154명**

발생건수 **16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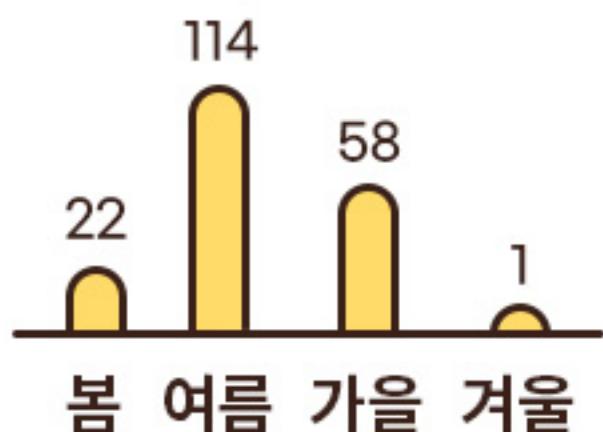
• 전국 식중독 발생 원인군 현황 •



6월, 세균성 식중독의 대표적 원인균

병원성 대장균

병원성 대장균 발생 빈도



특징 및 주요 증상

- ① 발병증상에 따라 5가지 형으로 분류되며, 원인균에 따라 잠복기간 9시간에서 9일까지 다양
- ② 대체로 설사 등의 증상이나 탈수, 복통 등의 증상 발생

생활 속 병원성 대장균 예방법

- ① 중심온도 75°C로 조리, 1분 이상 가열하여 섭취
- ② 생채소 섭취 시 소독액에 5분 담그고 깨끗한 물로 세척
- ③ 손질한 식재료 및 조리 식품은 냉장고 보관
- ④ 약수터, 지하수를 마셔야 할 때는 끓여서 섭취
- ⑤ 조리식품과 식재료 보관 시 구별하여 교차오염 예방

6월, 세균성 식중독의 대표적 원인균

캡필로박터 제주니

캡필로박터 제주니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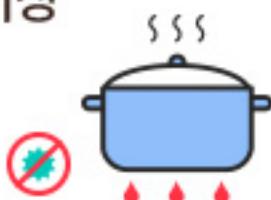
- ① 닭, 소등 동물 내장에 존재
- ② 37~42 °C에서 활발하게 증식
- ③ 75 °C에서 1분 이상 가열 시 사멸

주요증상 및 잠복기

- ① 발열, 구토, 복통, 설사 등
- ② 평균 2~7일 잠복기

생활 속 캡필로박터 제주니 예방법

- ① 생닭 등의 식자재와 다른 식재료가 닿지 않도록 주의
- ② 생닭 보관 시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
- ③ 생닭 세척 도중 튀긴 물이 다른 음식에 닿지 않도록 주의
- ④ 식재료 변경 시 손 씻고, 세제로 칼과 도마 세척
- ⑤ 중심온도 75°C로 조리, 1분 이상 가열하여 섭취



식중독 발생 시 대응방법은?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 방문

구토, 설사 등 식중독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의료진의 지시에 따릅니다.



집단 설사 환자 발생시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집단으로 설사를 하는 환자가 발생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확산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식중독예방관리 시스템 활용, 관련 기관에 알리기

식중독 집단 발생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식중독 예방 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련기관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기온이 올라갈수록 빈발하는 식중독!
올바른 식중독 대응 요령과
서울시 식중독 예방 정책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